

黎明期前後

— 初期電氣事業에 대한 再照明 —

崔漢燮

16. 韓日瓦斯株式會社の 設立

(1) 國內人의 가스事業出願

石炭가스를 照明으로 이용한 것은 1812년으로서 그해 英國 런던에 가스라이트 앤드 코크會社가 설립되었고 다시 1816년 美國 볼티모아에서 實用된 이후 歐美 各國에 널리 보급되었다. 東洋에서는 1862년에 上海, 홍콩, 그리고 1872년에는 日本 橫濱에서 가스사업이 起業되어 外人 居留地에 가스燈이 點火되고 이어 1874년 東京 銀座에 가스街燈이 보급되었다.

당시 최초의 가스燈은 裸火로서 가스를 火口에서引出하여 그대로 點火하는 등 지금의 炊事用 가스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상태는 光度에 있어서 오히려 石油램프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때마침 그때 부터 電燈이 보급됨으로써 가스燈은 곧 자취를 감추고 熱源으로만 남을 운명에 있었다.

그러나 그뒤 가스맨틀(Gas mantle)이 발명되어 光度가 강하고 빛깔도 白色이 되어 당시의 電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편리하여 크게 보급되어 屋內 照明과 특히 街路燈으로 한때 널리 이용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스事業 內國人이 1905년 出願

이 가스燈에 대한 지식은 日本에 파견되었던 修信使등에 의하여 일찌기 우리나라에 傳來되었다.

1876년 江華島條約 체결 직후에 朝鮮政府는 金綺秀 일행을 修信使로 日本에 파견, 그 나라의 物情을 상세히 탐지하여 오도록 했는데 이들의 記錄에 의하면 「…又以石炭煤油 燃於燈籠」이라고 하여 日本에서는 燈火에 石油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과 동시에 「…路傍立高柱 懸琉璃燈 通衢照映 蓋嘗 藏煤油于地下 引氣上乘 則雖至多年 晝隱夜明 省費不鮮者耳…」라고 기록하고 있다.

길가에 高柱를 세우고 유리燈을 달아 비거리를 밝히는데 말하기를 가스관을 地下에 매설하여 가스에 의하여 點燈하는데 多年에 이르러도 밤에만 켜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이들 修信使 일행은 1874년 부터 보급된 東京의 가스燈을 보고 놀란 것인데 그 뒤 1881년에 日本에 파견된 소위 紳士遊覽團이라는 日本視察團 역시 電氣通信 및 가스燈에 비상한 흥미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림-12〉 지금의 忠武路 2가에 있었던 韓日瓦斯創立당시의 京城支店, 本社は 東京에 있었다.

이와같은 가스事業의 보급추세와 그 知識이 傳來함에 따라서 뜻있는 사람의 관심을 끌며 오던중 1905년 5월 權重杓등이 재빨리 가스事業의 認許를 農商工部에 出願하였다.

權重杓등은 그 出願書에서 漢城内外에 煤氣事業(가스事業)을 創設하되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한 뒤에는 2百圓의 稅金을 납부하겠다고 그 계획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1905년(光武9년) 5월 30일 皇城新聞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請設煤社) 權重杓氏等이 昨日 農商工部에 請願하되 現今 天下萬國에 以電氣與煤氣로 世界事業上에 第一發明인 故로 有電氣事業則 宜有煤氣事業이오나 至于我國하야난 年前에 電氣事業은 既爲創設하얏고 煤氣事業은 姑未繼設하얏은則 大抵 煤燈放光이 爲增於電燈放光也오 點火利益도 亦是 廉價故로 本人等이 股金을 鳩集하야 煤氣事業을 設立하겠사오니 特爲認許하심을 伏望함 一은 漢城内外에 煤氣事業을 創設하고 營業을 開始할事. 二는 會社를 設立하고 營業을 開始한 後에 稅金은 二百圓으로 磨鍊할 事라 하얏더라.

出願人등은 당시 가스燈이 照度에 있어서 電燈보다도 밝을 뿐만아니라 料金도 電燈보다 값이싸다는 利點을 들고 있는데 本文中「股金을 鳩集」한다는 것은 株式을 모집한다는 뜻인데 이 出願은 그뒤 農商工部에서 許可되었는데 그 許可日字는 명확치가 않다.

그러나 모처럼 內國人에 의하여 계획되었던 이 최초의 가스事業도 起業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해 8월경 韓日瓦斯株式會社의 실질적인 創業者인 日本人 曾禰寬治에게 許可權을 賣渡하고 말았다

(2) 韓日瓦斯의 營業許可와 創立事業

1905년 日本은 露日戰爭에서 승리하자 그해 11월 17일 이른바 乙巳條約을 강제적인 수단으로 체결하고 1906년, 초대 統監에 伊藤博文을 그리고 副統監에는 曾禰荒助를 임명했다.

이 曾禰副統監의 아들 曾禰寬治는 재빨리 韓國의 앞날에 着眼하여 이보다 앞서 1905년 7월 서울에 來韓하여 韓國實情을 살피던중 가스事業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 理由는 電氣事業은 이미 美國人 손에 있었으나 서울은 겨울이 길고 날씨는 추운 반면에 薪炭이 부족하므로 가스로서 燃料를 공급함과 동시에 美國人과 대항하여 가스燈을 보급키로 계획하였으나 이



〈그림-13〉 1909년 준공당시의 龍山가스製造所의 全景

事業은 이미 權重杓(日本人 기록에는 權東壽로 되어 있는데 이는 權重杓등과 共同起業者의 한사람으로 짐작됨)등이 許可權을 획득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절충 그 권리 일체를 매수했다.

曾禰는 그의 父親 曾禰荒助(당시 大藏大臣)의 주선으로 東京瓦斯株式會社社長 澁澤榮一(1906년 漢江水電建設을 出願) 및 東京瓦斯의 重役들과 서울에서의 가스事業을 추진중 1906년 10월 統監府승으로 증진 韓國 宮内部에서 許可한 一部를 무효로 할 것을 告示함에 따라서 曾禰가 매수한 가스事業도 失權하고 말았다.

이때문에 그들은 統監府의 事前 양해하에 1907년 3월 5일자로 다시 京城府理事廳을 경유 統監府에 가스營業許可申請書를 澁澤榮一의 11명의 명의로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財界의 호황과 有望事業에 대한 投資意慾이 높아서 서울의 가스事業計劃者가 잇달아 이들의외에도 日本人側에서는 大阪瓦斯會社系가 그리고 韓國人側에서는 白完赫, 白寅基, 金時鉉등의一派가 전후하여 競願했다.

統監府에서는 이들 出願者의 경합으로 당혹하여 競願者끼리의 타협을 중용한 결과 韓國人側은 무조건 澁澤派에 加盟하였으나 大阪瓦斯派에서는 끝내 不服하였으나 統監府는 澁澤派의 先出願權을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1907년 6월 27일자로 許可指書を 교부했다.

각종 特權과 特惠누리면서 韓日瓦斯會社를 創立운영

營業權을 허가받은 그들은 가스製造所와 영업소의 建設敷地 선정에 착수. 1908년 5월 統監府의 지원아래 龍山에 있는 鐵道管理局 및 日本의 韓國駐劄軍司令部 소유의 토지 1만 4천평(이 土地는 1905년 7월 日本軍이 龍山을 鐵道·軍事基地化하기 위하여 韓國 민간인으로부터 강제 收用한 300만평중의 일부임)에 대한 貸與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다시 1910년에는 軍用地중 3,227평은 1913년 6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7,220평은 1915년 4월 까지 貸貸料를 면제받는 特典을 누리는 등 각가지 特惠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당국의 지원하에 그들은 1907년 9월 東京瓦斯株式會社내에 創立事務所를 개설하고 설립 趣旨書를 작성, 發起人과 贊成人의 권유에 나섰는데 그 趣旨書 요지는 다음과 같다.

〈韓日瓦斯株式會社 創立趣旨書〉 韓國經營의 事業을 헤아려보면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고는 하

나 文明的인 시설로 在韓國內外民에게 便益을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時急한 과제로 생각되며 우리들이 京城에 瓦斯事業을 企劃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의 事業인 燈火用, 炊事用, 暖房用, 動力用 및 그 副生産物을 產出함에 있어서 그 效果의 甚大함은 再論이 필요치 않으나 지금 이 사업을 韓國의 首都에서 켜는 것은 世態와 國家的인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장차 京城의 發展에 수반하는 營利의事業으로서도 輕視할 수 없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하물며 이 사업의 特許條件은 앞으로의 事業經營에 利點이 많음은 別添 許可命令書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日韓瓦斯株式會社의 설립을 發起하고 널리 세상에 贊同을 求하는 所以이다.

多幸히 이 事業의 조사 및 공사의 설계에 있어서는 다년간 이 업무에 경험이 많은 東京瓦斯株式會社의 當事者에게 촉탁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創業 업무에 있어서는 극히 신중하고 견실하게 취급하여 조금이라도 日韓合併 事業의 모범이 되고자 하였는바 이것들이야말로 本事業企劃者의 처음 부터 변함없는 信念이기도 하다.

따라서 別紙를 供覽에 부쳐 贊成을 얻고자 하오니 모처럼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以下 생략).

이상의 취지서에 그들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듯이 韓日瓦斯는 統監府를 비롯한 日本人 당국자의 절대적인 비호와 지원아래 출발하였던 것이다.

광대한 土地의 무료사용외에도 이미 韓日瓦斯는 1907년 6월 營業許可를 교부할 때에 韓日瓦斯가 事業用으로 機械 其他의 輸入時에는 關稅免除의 特惠指令까지 받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 다시 韓日瓦斯가 韓美電氣를 매수하였을 때에는 이 會社가 日本의 對韓政策의 본뜻을 받들어 多大한 희생을 무릅쓰고 韓美電氣會社의 權利義務一切를 계승했다고 하여 統監府가 韓國內閣에 압력을 가하여 1909년 12월 17일자로 가스事業 뿐만아니라 電氣事業에 대하여 關稅免除의 특혜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당시의 韓國政府의 命令全文은 다음과 같다.

〈度命令 第七三號〉

其會社 瓦斯事業許可에 關한 光武十一年 六月 二十七日附 命令書中 第四條를 改正하여 其會社가 輸入하는 事業用品의 關稅免除에 關하여는 다시 左開와 같이 定한다.

1. 瓦斯事業 및 電氣事業의 經營上 특히 필요한 機械器具는 瓦斯營業의 許可日 즉 光武十一年 六月 二十七日 부터 起算하여 滿十五個年에 이르기 까지 關稅를 免除한다.
2. 前項外에 瓦斯事業 및 電氣事業의 工事施行上 특히 필요한 각종 材料는 本命令의 日字 부터 向後 三個年間 關稅를 免除한다.

단 用度品은 제외한다.

隆熙三年十二月十七日

度支部大臣 高永禧
內部大臣 朴齊純

가스와 電氣事業의 經營上 필요한 機械器具는 15년간 그리고 工事施行上 필요한 각종 재료에 이르기 까지 3년간 관세를 면제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統監府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총자본금 3백萬圓(제1회 불입금 75萬圓)을 목표로 그들은 株式公券에 나섰다. 그러나 때마침 1907년 부터 財界의 不況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게되자 肅親王治는 韓國 宮內府에 株式引受를 강청하여 4천株를 소화하는등 日本內는 물론 韓國各地를 遊說하면서 株主物色에 주력 겨우 滿株가 되어 1908년 9월 30일 東京에서 創立總會를 갖고 定款과 任員陣을 의결했는데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取締役會長 澁澤榮一, 專務取締役 岡崎遠光, 取締役 高松豊吉, 久米良作, 大橋新太郎, 山口太兵衛, 白寅基, 監査役 伊藤幹一, 平澤道次, 金時鉉

(3) 첫 點火와 그뒤의 變遷

韓日瓦斯는 1908년 10월 5일 東京에 本社를 설치하고 영업준비에 착수하여 1909년 10월말 까지 가스 제조 및 공급설비와 업무설비를 모두 마쳤는데 첫 供給수용가는 지금 忠武路의 日本人街 914戶로 서 引込線 總延長은 4만5천피어트였다.

이처럼 모든 시설이 일단락됨에 따라서 韓日瓦斯는 1909년 11월 3일 소위 그들의 天長節을 기하여 그날 밤 첫 點火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가스燈의 시초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당시 서울에서 電氣를 공급하고 있던 韓美電氣의 電氣料金は 비교적 높아서 16燭光이 1개월에 2圓 50錢, 1燭光이 1개월 1圓60錢인데다가 별도로 높은 架設費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수요가 극히 부진하여 서울시내 總戶數 약 5만戶중에 수용가는 493戶에 燈數는 10燭換算 8,398燈에 불과했다.

그러나 韓日瓦斯는 이러한 韓美電氣에 대항하기 위하여 요금도 政策的으로 조정, 가스요금은 1천立方피어트에 3圓 가스燈은 보통램프 1개 1개월에 1圓内外인데다가 光力은 오히려 電燈을 능가함으로써 가스事業은 서울시민들로 부터 크게 환영받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電氣事業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韓日瓦斯의 가스공급실적을 보면 영업개시후 1910년 1월말 가스공급량 87,953立方미터, 코크스 제조량 38.8톤, 콜탈 生産 42.9石, 引用家口 773호 燈火口數 1,982孔口, 熱用 253孔口에 이르렀고 다시 1915년 1월말에는 燈火口數가 16,509孔口까지 늘어났으나 그뒤 부터는 電燈에 밀려나가 1941년말에는 306孔口로 줄어든 반면에 熱用은 42,929孔口로 늘어났다 (熱用의 最全盛期는 1939년 1월말의 44,918孔口)

한편 韓日瓦斯는 1909년 韓美電氣를 매수한후 電氣事業과 병행하여 가스시설의 확장에 주력하여 1913년에는 龍山의 製造爐를 증설하고 1915년에는 35萬立方피어트의 瓦斯溜 組立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스 需要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급설비로서는 그 수송량을 감당할 수 없게되자 高壓供給方式을 채택키로 하고 1916년 8월 1일 龍山가스제조소로부터 현 韓國銀行앞까지 高壓管 埋設공사를 착공하여 같은해 12월 5일에 완성함으로써 가스를 서울시내 全域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뒤 1936년 中日전쟁이 일어나자 冶金공업의 필수품인 코크스의 수요가 늘게되어 당시의 京城電氣에서는 富平에 仁川가스製造所를 건설키로 하고 공사비 60萬圓을 들여 1940년 5월에 착공 1942년 3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1939년 12월 朝鮮石炭配給統制規則이 발표되어 石炭확보가 어렵게 되고 다시 1941년 6월에는 瓦斯需給調査規則이 공포되어 가스消費規程이 강화됨으로써 가스事業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軍需工業의 발달에 따라서 副産物인 코크스 콜탈등의 軍需가 증가함으로써 1943년 12월 往十里 코크스工場을 건설했다.

그뒤 1945년 해방과 함께 原料炭이 없어 코크스生産은 한때 중단되었다가 軍政당국의 주선으로 1945년 12월에 發生爐에 火入한후 1946년 2월 21일 부터 韓國人의 손으로 가스의 생산을 개시 공장과 일반가정에 공급하였다.

원래 가스의 原料炭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므로 해방후에는 주로 日本産石炭에 의존하였으나 수입량의 부족과 炭質의 不良으로 가스事業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더우기 6.25동란으로 龍山製造所의 시설은 60%가 그리고 往十里제조소는 30%가 피해를 입었으나 자금사정으로 복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채 1909년 韓日瓦斯에 의해 우리나라에 첫번째로 點火된 가스事業은 중단되고 말았다.

다만 당시의 京城電氣에서는 이 가스事業의 再建計劃을 추진한바 있는데 京城電氣는 이 계획에서 외국에 의존하는 有煙炭 대신에 국내의 無煙炭을 原料로 가스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최신장비를 龍

산제조소에 代置하고 왕십리코크스제조소는 有煙炭을 原料로 하는 新設備로 轉換할 것을 시도하였는데 참고로 그 再建計劃을 다음에 수록한다.

◇ 龍山가스製造所

型 式 파워가스型
 種 류 無煙炭增熱가스發生爐장치
 가스生産量 日間 50,000立方m
 原料소비량 無煙塊炭 日間 30톤,
 重油 日間 10톤
 供給可能戶數 20,000戶

◇ 往十里코크스製造所

型 式 오트型
 種 류 코크스爐장치
 能 力 4室用 5門2式
 原料炭消費量 코크스用 有煙炭 日間 200톤,
 無煙塊炭 日間 20톤

*

● 案 內 ●

제10회 국내산업시설 견학 및 세미나 개최

1. 목 적

경영상태가 우수한 국내산업체를 직접 견학하고 이에 관련된 현지 세미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회원의 기술 개발과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회와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기 간 : 1985. 11. 5 (화) - 11. 7 (목) 2박3일

3. 산업시찰 대상 업체

업 체 명	지 역	내 용	비 고
금성계전(주)	청주	중전기 제조공정 견학 및 세미나	속리산, 법주사
현대중전기(주)	울산	중전기 제조공정 견학 및 세미나	경주고적지
현대중공업(주)	울산	선박 제조 설비 견학	울진 석류굴,
월성원자력발전소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견학	강릉 경포대,
포항제철(주)	포항	철강 생산설비 및 발전설비 견학	등 견학
쌍용양회공업(주)	동해	시멘트 제조공정 설비견학	

4. 모집인원 : 33명 (선착순)

5. 참가회비 : 75,000원 (1인당) (총소요비용 1인당 85,000원 중 협회보조 10,000원)

6. 참가범위 : 회원사 중견간부 및 회원

7. 신 청 : 신청기간 - 1985. 8. 25 ~ 10. 10

신청방법 - 소정신청서와 참가회비

8. 접수처 : 대한전기협회기술부 (274-1661~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1의 4